**아시아영화펀드(ACF)**

**공동제작지원펀드 신설 및 공모 접수 시작!**

**2025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이 한국과의 국제공동제작 영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‘ACF 공동제작지원펀드’를 신설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 공모를 시작했다**.

**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, ACF 지원 범위 확장!**

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(Asian Contents & Film Market, 이하 ACFM)은 아시아영화펀드를 통해 시나리오 개발, 다큐멘터리 제작, 장편 극영화 후반작업 등 영화 제작 과정 전반을 지원해왔다. 올해는 여기에 더해 **제작을 앞둔 프로젝트에 현금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‘공동제작지원펀드’를 새롭게 마련해 한국과 아시아 영화 제작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.**

지원 대상은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장편 극영화 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중, 한국과의 공동제작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순제작비의 60% 이상 파이낸싱이 완료된 작품이다. 선정된 1편의 프로젝트에는 약정 체결 후 일정 조건 하에 제작비 5만 불 혹은 6,500만 원이 직접 지급되며, 완성작은 2026 부산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의무로 한다.

**현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제작 지원 통해,**

**플랫폼 역할 톡톡히!**

ACF 공동제작지원펀드는 태국 치앙마이에 본사를 둔 하이라이프(Hylife Group)의 후원으로 운영된다. 하이라이프는 부동산, 자산운용, 식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젊은 기업으로, 최근 K-시네마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영화·음식·음악이 결합된 국제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다. 이번 펀드는 하이라이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.

김영덕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위원장은 지난 5월 칸영화제 기간 중 열린 ‘Spotlight on Asia’ 세션에서 “하이라이프의 귀한 재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, 공동제작 프로젝트가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ACFM이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.”는 계획을 밝혔다. ACFM은 이번 펀드를 시작으로 **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공동제작 생태계**를 확장하고, 아시아 영화가 **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완성**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2025년 ‘ACF 공동제작지원펀드’의 공모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, 자세한 사항은 ACF 홈페이지(acf.biff.kr)에서 확인 할 수 있다.

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20일(토)부터 23일(화)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(ACFM) 기간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.

▶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| 9월 17일(수) - 9월 26일(금)

▶ 제20회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| 9월 20일(토) - 9월 23일(화)